

## Street dance의 신체미학적 가치 연구

-Shusterman, R.의 미학을 중심으로-

\* 이 주 영

Abstract

I. 서론

II. Shusterman, R.의 신체미학(somaesthetics)의 주요개념

III. '스트리트 댄스'의 신체미학

IV. 결론

참고문헌

---

\* 대구가톨릭대학교 무용학과 외래교수

논문투고일 : 2018.10.27.

논문심사일 : 2018.11.17.

게재확정일 : 2018.12.01.

## A study on the physical aesthetic value of street dance

- focused on Shusterman, R. aesthetics -

Lee, Joo-young · Daegu Catholic University

---

This study aims to research the aesthetic value of street dance in the somaesthetics by Richard Shusterman.

The somaesthetics by Richard Shusterman criticizes the dichotomous world view that has been the basis of modern aesthetics, and pursues the identity theory which is the unity of ‘consciousness’ and ‘body’. He also argues that the aesthetic experience in daily life is not completed by study and theories, but socially, politically, and culturally acquired based on individuals’ active practices like physical movement and immersion, and these activities should be viewed as a category of aesthetics.

Moreover he also considered that the characteristics and values of rap, graffiti, and dance would be the somaesthetic approach great enough to emphasize the aesthetic area of popular culture. As a front-runner of popular culture, the street dance could be a style of general arts containing life and culture of black people as the embodied consciousness, and pursues the convergence and complexity without hesitation, based on the regionality, culturality, and historicity.

Especially, the pure ‘pleasure’ generated by street dance stimulates the humans’ instinct and also implies the perceptual, sensuous, and conscious properties. For this reason, it was regarded as an element that should be removed in the modern aesthetics. As the somaesthetics by Shusterman viewed the pursuit of ‘pleasure’ through humans’ natural instinct would be extremely natural, however, the pursuit and practice of ‘pleasure’ and aesthetic experience through ‘body’ are all the theoretical basis that expands the area of aesthetics to the area of life. Thus, it aims to realize the ‘aesthetics’ as the existential subject by feeling the aesthetic experience through the voluntary and direct attitude, and also recovering the connectivity between daily life and aesthetics.

In addition, street dance that has become a subject of acts through the formation of its own stylization, composes the healthy community through this changed body. This community of street dance soon cognizes, views, and heals each other for the recovery of life under the acknowledgement, respect, and consideration of others. In other words, street dance and life are not the concepts far away from

each other. All the happenings in daily life could be the motif of movement and the material of dance, and in this process, the new movement, creative discovery, and the arts as a life could be performed.

The characteristics of street dance fully contain the creative/existential/healing values as the somaesthetics for the aesthetic life, and as the aesthetics of practical life, argued by Richard Shusterman. As street dance could have the aesthetic approach/analysis on 'body' as a form of arts, it would be possible to have more systematic approaches as the somaesthetic establishment and grounds of street dance in the future.

〈key words〉 Richard Shusterman, somaesthetics, street dance, dance, hip-hop

〈주요어〉 리처드 슈스터만, 신체(몸)미학, 스트릿 댄스, 춤, 힙합

본 연구는 리처드 슈스터만의 신체미학으로 본 ‘스트릿 댄스’의 미학적 가치를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근대 미학의 기조는 미적 경험에서의 ‘신체’의 역할과 중요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대체적으로 견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Platōn으로부터 시작된다. 즉 ‘신체’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내재되어있는 감각적 특질은 예술가의 무의식적 영역에 속하고 예술은 감각적 특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지적인 철학보다 열등한 것으로 보았다(황인주, 2016:179).

리처드 슈스터만은 ‘신체’를 ‘미’의 영역으로 확장하여 소수의 예술향유 계층에서만 누렸던 ‘미’를 삶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신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실천미학으로서의 ‘신체미학’을 주장하면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신체’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찾고 미학의 새로운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자가 리처드 슈스터만의 신체미학이론에 주목하는 이유는 미학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시도를 통해 대중예술까지도 미학의 영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삶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생생한 활동(performing live)에서도 미적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논증하고자하기 때문이다. 대중예술은 인종과 종교, 국가와 성별을 넘어서 누구나 즐기고 느낄 수 있는 문화 장르로서 순수예술에 비해 저급, B급 문화로 취급 받았지만 오늘날 대중문화는 오히려 문화 물결의 선두주자로 패션, 음악, 미술 등 예술계의 전반을 아우를 뿐만 아니라 그 가치와 의미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게 대두된다.

이러한 대중문화의 영역 중에서도 ‘신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직접적이고 본능적인 분야가 스트릿 댄스이다. 스트릿 댄스는 자유성, 본능성, 개방성, 즉흥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힙합문화에 기초하는 독자적인 춤 분야이다.

힙합문화는 과거 흑인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저항성을 배경으로 하여 당시 미국 내 흑인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대도시 흑인들의 좌절, 분노, 저항 등이 뒤섞여 등장한 하위문화의 형태이다(이우재, 2010:7).

힙합문화는 MC, DJ, Ggafitti, B-boy 등 4대요소로 나누어 예술적 특성과 분야의 독특함을 유지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며 발전해왔다. 초기 힙합 문화는 미국사

회 내에서 차별받는 흑인들의 인권보장과 권리에 대한 메시지가 강하였으므로 저항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인식을 남겼으나 오늘날에는 개방적 문화로서 인종, 지역, 종교를 넘어서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와 감성을 충족시키며 대중문화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하였다. 힙합문화의 4대 요소 중 b-boy를 상징하는 스트릿 댄스는 아메리카 대륙의 유럽식민지 확장에 따라 16세기말부터 17세기 말까지 아메리카대륙으로 건너온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에 기인한다. 스트릿 댄스는 곧 문화적, 사회적, 시대적 상황 속에서 다양한 장르와 분야로 과생되면서 급속도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급변하는 문화 예술적 변화와 예술의 재규정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름다움의 기준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고 창조, 생성되고 있다. 근대 미학에서 제시한 ‘미’의 기준이 아닌 새로운 관점에서의 ‘미’를 제시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스트릿 댄스의 미학 분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원지혜(2013)의 ‘힙합댄스의 미적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연구로만 그치고 있으므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이지 않으며 미학적 분야에서의 연구 활동이 전무한 실정이다. ‘신체’의 미적 가치가 시대에 따라 변화되고 있으며 개념 역시 확장되고 있는 현대사회 속에서 대중예술문화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스트릿 댄스의 ‘신체’에 대한 미학적 존재성과 의미를 되찾고 가치를 탐구하는 시도가 필연적이라 사료된다.

스트릿 댄스는 ‘신체’를 중심으로 자신의 행위적 주체성을 되찾고 당당하게 자신의 존재를 개인의 삶 속에서 드러내며 세계를 인식하는 예술행위이다. 스트릿 댄스는 내면에 내재되어있는 감정들을 창조적, 생산적 에너지로 전환하며 자기 주도적 태도와 능동적 사고로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예술적으로 해소하는 예술행위이며 스트릿 댄스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의 현장과 밀접하게 닿아있다.

리처드 슈스터만의 신체미학은 ‘미’를 언어와 문자로 보는 학문적 태도보다도 실존적 주체인 ‘신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에 미학적 깊이와 영역이 심화된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신체’는 ‘정신’과 동일한 위치로서 자신의 체화된 의지 그 자체로서 존재한다. 이러한 체화된 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테두리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능동적 태도로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미학적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스트릿 댄스는 철저하게 ‘몸’에 기반한 역사들에 의해 출발하고 독자적인 특성과 미학적 가치가 있음에도 순수예술, 고급예술에서 정의한 예술적 가치로서의 ‘미학’, 숭고한 ‘미’의 관점으로 너무 치중된 나머지 미학의 영역으로도 인식되지

못하고, 저급문화, B급 문화로 쾌락만을 추구하고 저항의식과 폭력적인 음지의 문화로만 취급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리처드 슈스터만이 주장하고 있는 ‘신체미학’을 통해 스트릿 댄스를 탐구함으로써 스트릿 댄스에 내재되어있는 미학적 가치를 밝히고자 한다.

## II Shusterman, R.의 신체미학(somaesthetics)의 주요개념

### 1. 미적 경험을 통한 ‘살아있는 아름다움’

리처드 슈스터만의 ‘신체미학(somaesthetics)’은 세계를 이분법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근대 미학 정신을 비판하고 ‘신체’의 경험으로서 획득되는 미적 가치를 논증하고자 하는 미학적 시도이다. 순수하고 숭고한 ‘미’를 철학적, 미학적 정신으로 계승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미적 가치로서의 ‘신체’의 역할과 기능을 탐구하며 미적 가치와 실천적 가치를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이은선, 2004:53, 원지혜, 2013:61 재인용). 특히 신체미학은 무엇보다도 다양한 미적 개념 중에서도 ‘미적 경험’을 강조한다.

‘미적 경험’은 사실 생산적인 담론이 형성되기 보다는 비판적인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Adorno, T.는 몸이 자본주의의 선전 도구가 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Danto, A.는 ‘미적 경험의 개념이 지니고 있는 미적 쾌락은 피해야 하는 위험물이다’이라고 경고하면서 그 개념을 사실상 멀리했다(Shousterman, R., 2000. 허정선·김진엽 역, 2012:42).

리처드 슈스터만에 있어서 미적 경험은 ‘미적 개념들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고 간주되어 왔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온 개념’으로 평가한다(Shousterman, R., 2000, 허정선·김진엽 역, 2012:41). 미적 경험에 있어서 이성적 이해의 역할을 인정하나 감각적 활동의 중요성이 무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미적 경험의 주체는 체화된 존재로서의 인간이며, 인간 경험은 감각적 지각으로부터 출발하여 인식을 통해 체화되는 과정을 연속적으로 거치기 때문에 감각적 활동의 가치를 부정 또는 경시하는 것은 인식 주체로서 인간 경험을 왜곡시킬 수 있다. 주지주의적 입장에 따라 순수한 미적 이해를 위해서는 감각, 정서에 우선되는 이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주장은 실천적 영역에서의 미적 이해와 직접적인 미적 경험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올바른 미적 경험과 실천을 행하기 위해서는 감각적 이성적 활동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리처드 슈스터만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황인주, 2016:180).

둘째 또한 미적 경험은 체화된 존재로서 몸의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칸트는 순수한 미적 이해를 위해서 신체적 욕구, 관심으로부터 벗어나 초관심적 자세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런 초관심성은 기본적 욕구나 관심이 어느 정도 만족된 상태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미적 이해는 소수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특권층에게만 허용 되었다. 또한 미적 경험의 대상을 순수예술, 자연미로 암묵적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삶 속에 내재되어있는 다양한 미적 특성을 경험함으로써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미학의 본래 취지를 매우 제한하는 결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인간의 욕구나 필요는 배제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미적경험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미적 경험의 생리학적 토대로서 인식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리처드 슈스터만은 예술을 위한 예술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한 미적 경험에서 벗어나 일상적 삶의 미적 경험에 초점을 두는 삶의 예술로서의 신체미학을 제시하고 있다(황인주, 2016:180). 리처드 슈스터만에게 삶에서 이루어지는 미적 경험은 예술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규정된 실천이라고 정의 내리는 한계에 구속되지 않으며 최종적으로 예술에 내재되어 있는 이익과 규범과 억압에도 통제를 초월하는 것이다. 우리는 감각기관의 작용과 그로부터 일어나는 신체적인 감각에 대해 그것을 언어로 설명하고 분석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의 원활한 작용으로 인해 느끼는 만족감에 대해서는 생물학이나 해부학 그리고 의학 등 관련 학문이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언어로써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이승진, 2016:58). 리처드 슈스터만의 신체미학에서 ‘신체’를 통한 직접적인 미적 경험의 본질은 순수한 ‘쾌’의 발현이며 쾌의 발현에 있어 신체는 ‘최고의 쾌를 누리는 자리’라고 주장하였다.

쾌(pleasure)는 미적 주체로서 주관이 느끼는 만족감(satisfaction)과 미학적으로 일맥상통하는 바, 이것은 미(아름다움)의 주관적 속성이다. 그러나 만약 몸의 기능의 직접성을 통해 느껴지는 만족감이 있다면, 그것은 언어적 해석이나 논증적 경험에 의해 설명되어 질 수 있는 객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 2. ‘문화적 타자’인식을 통한 ‘자기스타일화’

리처드 슈스터만의 신체미학에서 ‘자기스타일화’개념은 직접적인 육체적 경험에 의해 ‘건강한 쾌’를 산출하는 ‘살아있는 아름다움’을 통해 실현된다. 즉, 자기스타일화는 말투나 몸짓의 스타일, 헤어스타일과 옷을 입는 스타일, 운동 스타일, 식사 스타일 등을 포괄하는 체화된 의식의 ‘살아있는 아름다움’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신체미학에서 ‘자기(自己, self)’개념은 “살아있는 아름다움(living beauty)”를 실행하는 실천적 장(場, field)이다. 일반적으로 장이란 주체(subject)와 객체(object)가 만나는 하나의 상황이다. 자기는 미적 주체로서의 자기가 객체로서의 세계와 만나는 지대, 즉, 구체적인 삶의 문맥 속에서 “자기 스타일”을 형성하는 실천적 장이다. 또 한편으로서는 “살아있는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주체이면서 실천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자기’는 미적 주체인 동시에 미적 객체이기도 하다.

자신의 스타일을 추구한다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어떤 의미인가? 어떠한 이유로 우리는 자기 스타일화를 추구해야만 하는가? 현대사회는 다양한 문화가 융합되고 있는 글로벌 시대(globalization)라고 할 수 있다. 리처드 슈스터만의 신체미학은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있어 문화다원론(cultural pluralism)을 지향한다. 문화다원론은 국가, 인종, 집단 간의 교차 문화적 현상을 지지하는 이론 및 이념적 태도라고 볼 수 있다. 문화다원론에서는 ‘타자성’에 대해 배려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신체 미학에서는 독자적인 나의 ‘스타일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오는 다른 ‘타인’의 본성을 이해하고 ‘차이’를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드리기 때문에 ‘타자성의 미학’, ‘배려의 미학’이라고 지칭될 수 있을 것이다. ‘자기스타일화’는 이기주의, 자신의 개인주의, 고집과 편견, 선입견등을 넘어서 나와 다른 타자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스타일이 끊임없이 개선, 발전, 변형되어진다.

문화다원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기’가 문화적 타자를 만나는 것은 ‘자기이해(self-understanding)’을 길러준다(허정선, 2005:69). 즉 단순한 흑백논리, 대조를 통한 해석이 아니라 융합적 시도, 흡수와 수용을 통해 자기이해를 기반으로 자기인식이 이루어진다. 바꾸어 말하면 다른 ‘문화적 존재’들에 대해 수용하고 타인에 입각하여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정의내릴 수 있다. 타자들의 측면을 받아드린다는 것은 복합적인 문화적 과정들을 교차하면서 우리 자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거나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자기스타일화는 자기를 존재를 규정하는 과정과 타인에 대한 자기 변형적 흡수(self-formational absorption)로 인한 발전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자기스타일화는 집단의 정체성을 지지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개인의 고유한 스타일을 달성하

고 표현하는 것이 요청된다. 개인의 스타일을 구성하다는 것과 진정한 미적 자기표현을 구성하는 것은 독창적인 스타일을 획득하는 것으로 비범한 천재의 특권으로 간주된다. 리처드 슈스터만은 자기스타일화의 주체인 우리가 각자의 고유한 스타일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천재적인 예술적 기획을 실천하는 기획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전통적 미학에서 말하는 천재는 일반적으로 보편을 초월한 특수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리처드 슈스터만은 천재가 초월적 특수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천재 개념의 패러독스에 주목한다(허정선, 2005:73). 특수와 보편에 대한 천재 개념의 패러독스는 천재는 위대한 걸작을 창조하는 예술적 천재에기만 일컬어지는 용어이기보다 고유한 개성을 갖고 있지만 평범한 품성을 드러내는 개인에게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하다.

‘자기스타일화’는 비범한 천재의 삶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 현장에서 체화된 의식으로서의 신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생생한 활동을 통해 ‘살아있는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보편적 개인의 삶이다. 곧 나의 신체적 습관의 개선과 건강의 증진을 물론 자기인식과 자기완성이라는 인생의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스타일화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그물망을 뚫고 자기 개선과 사회개선으로서의 통로가 될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지배 이데올로기를 관철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리처드 슈스터만은 미적 충동이 삶의 행위를 지향하고 철학이 비판적이고 개선적인 삶의 예술로서 고려되며 실천될 때 다문화적 이해의 관념이 자기스타일화의 기획으로 통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리처드 슈스터만의 신체 미학은 급진적인 혁명을 통해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정신이 아니며 주어진 삶의 상황 속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부정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을 최대한 해결하려는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로서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리처드 슈스터만은 개인의 ‘자기스타일화’를 통해 자기개선과 변형을 꾀함으로서의 열린사회, 보편적인 사회의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리처드 슈스터만에 의하면 현대적 자기(modern-self)가 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자기 특유의 진실한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단순히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이고 평등한 존엄성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그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즉 스스로의 독특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리처드 슈스터만의 신체미학은 자유주의 이념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의 총제적인 사회 변혁을 이끌어 내는 것보다 개인적 실천에 의한 점진적인 사회 개선을 추구한다. ‘자기스타일화’는 개인의 사적인 실천 통로이지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기’ 즉, 공동체 삶의 지향성을 바탕으로 한 개성을 살리는 것이다.

자기스타일화는 공동체 삶의 조건이 풍성할 때 풍부하게 구현되기 때문에, 사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의 공적인 것을 추구해야 한다.

다문화적 문화 현실을 인정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리처드 슈스터만은 집단의 단체행동이나 국가적 차원의 전체적 혁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취미와 스타일을 통해 자기개선과 변형을 꾀함으로써 사회적 개선으로 확장됨을 추구한다. 유기체로서의 인간인 ‘자기’가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 환경과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상, 자연의 리듬의 일부인 이상, 자기는 충돌과 모순과 갈등과 긴장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인간 존재로서, 자기개선과 자기변형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리처드 슈스터만의 신체미학은 영원한 행복한 행복 그 자체도 영원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고정불변한 어떠한 인간의 관념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현실의 장, 단점을 비판적으로 진단하고 끊임없는 개선과 긍정적 변화를 꾀하는 실용적 철학인 것이다.

### III ‘스트리트 댄스’의 신체미학

#### 1. 창조적 관점: 움직임 생성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리처드 슈스터만의 신체미학은 ‘미적 경험’의 직접성을 통해 생생한 ‘쾌’가 도출되며 이러한 ‘쾌’를 추구하는 ‘신체’는 살아있는 아름다움 그 자체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쾌’는 사실 근대 미학에서 ‘미’를 인식함에 있어 제거해야하는 요소로 치부되어 왔지만, 스트리트 댄스에서는 무엇보다도 내면에서 일어나는 ‘흥’, 즉 즐겁고 신명나는 흥으로서의 순수한 ‘쾌’를 매우 강조한다. 이는 스트리트 댄스의 주체인 흑인들이 삶과 문화예술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들을 기반으로 장르들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1863년 Lincoln의 노예해방선언 이후에도 흑인들은 백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였다(위키백과). 흑인의 문화와 민족에 대한 의식운동은 1960년대 중반에서 시작되었으며 흑인의 역사에 대한 재인식, 정체성 확립, 공동체 의식의 확립 및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의 구축을 통하여 인종적 차별과 억압을 극복하

려 한 블랙파워운동(black power movement)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그리고 블랙파워 운동의 시작과 동시에 이 정치적, 사회적 운동을 예술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순수흑인예술운동역시 함께 전개되었다(강선구, 2011:26-27).

즉, 사회 계급 내에서 부조리하고 부당함에 대해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예술을 통해 해소하려는 힙합 정신이 깃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힘든 상황을 유희와 풍자로 해석하려는 시도 역시 맞물려 이루어지면서 스트리트 댄스가 발전함에 있어 큰 영향을 주었다. 즉 스트리트 댄스가 관객만을 위한, 또는 수단과 목적으로만 ‘신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신체적 한계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음악에 맞추어 자유롭게 움직이는 과정은 스스로도 몰랐던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찾고 내면을 가감 없이 표출함으로써 스트리트 댄스가 자신의 삶 전반으로 확장되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스트리트 댄스는 자신의 순수한 ‘쾌’를 획득하게 된다. ‘쾌’는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숨기거나 없어야 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기에 필요한, 인간다워짐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쾌’를 추구한다. 또한 이러한 순수한 쾌의 발현으로서의 스트리트 댄스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행위 예술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스트리트 댄스는 미적 경험의 직접성을 통해 시간과 공간에서 동시에 존재하며 춤의 형태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생생한 경험’의 표본이기 때문이다. 스트리트 댄스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내면에 내재되어있는 미적 경험을 신체적 느낌과 감각을 통해 드러내고 역동적이며 총체적인 하나의 현상이다.

또한 스트리트 댄스는 소수에게만 선택되어진 ‘춤’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나 스튜디오, 교수자에 의해 발전된 기존의 무용 양상과는 다르게 발전해왔다. 가령 발레가 16세기 궁정 후원 아래 귀족 중심으로 발전되었거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서 현대무용이 무용학교나 전문 스튜디오 등에서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무용수들이 무용을 습득하였다면 스트리트 댄서들은 거리와 클럽, 파티문화, 공원 그리고 농구장 등 장소를 막론하고 길 위에서 스트리트 댄스를 본능적으로 배우고 익히며 음악의 발달과 함께 섬세하고 예민하게 발전해왔으며 자신의 삶에서 만족감, 성취감, 보람과 희열 등을 느꼈다고 할 수 있다.

즉 스트리트 댄스는 우리의 일상에서 주체적인 정신과 신체를 통해 매우 의미 깊은 사건의 연속이자 일상적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리트 댄스를 통해 삶에서 얻어지는 미적 경험은 객체로부터 얻는 감각에서 의식을 거쳐 앞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

스트리트 댄스는 단순히 몸의 외양적인 움직임, 재현적이고 모방적인 움직임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닌 자신의 존재를 인식함으로써 겸손해지고 성숙해지며 타인과 만나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롭고 창조적인 움직임으로 연결되고 그것은

곧 새로운 문화적 창조로 연결된다. 문화예술의 흐름과 발전에 있어 수동적 자세가 아닌 개방적 태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항상 상호소통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즉 스트리트 댄스에 있어 '신체'는 살아있는 아름다움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하나의 장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스트리트 댄스의 태도는 체화된 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을 둘러싼 부조리적인 상황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 해학과 풍자, 노래와 춤 예술을 통해 드러내고 표현한다. 그 과정 속에서 새롭고 다양한 움직임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스트리트 댄스의 움직임 역시 창조적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창조적 행위들의 연속은 곧 다양한 문화의 창조적 관점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 2. 존재적 관점: '자기스타일화'에서 행위주체성

최종환(2012)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리트 댄스가 행해질 때 욕구해소, 관심, 목표, 진선미의 추구, 의지 등의 철학적 차원의 자기인식과 새로운 독특함, 미적 영감표현, 정신과 감각의 작용 등 미학적 자기인식이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스트리트 댄스가 타자의 관점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예술행위가 아닌 자신이 결정하고 실행하는 주체적 행위성을 가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스트리트 댄스의 본질이 '자기(self)'개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보다 진지하고 심도깊은 태도로 스트리트 댄스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스트리트 댄스를 통해 댄서들은 새롭고도 독특한 자신만의 문화적 코드와 양식을 만들며 예술세계를 구축하는 것을 추구하는데 바로 'a.k.a(as known as)', 즉 스트리트 네임을 사용한다. 이러한 스트리트 네임의 사용은 단순히 개성과 멋을 표현하는 수단이 아닌 춤을 행위하는 주체로서 추구하는 삶의 신념 혹은 자신의 이상향을 표현하고자 하며 독자적인 '자기스타일화'를 드러내는 함축적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스트리트 네임을 통해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여되는 젠더, 역할, 지위, 국적, 인종 등을 초월하며 두려움과 불안으로서 해방되고 진정한 자신의 '자아'를 찾고자 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안창용, 2013:34).

스트리트 댄스는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이고 드러내는데 있어 거리낌이 없으며 당당하고 주체적인 태도로 표현한다. 또한 의식과 무의식을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자아를 만나게 되는 과정을 겪으며 성숙해진다.

스트리트 댄스 속에서 새롭고 독창적인 춤 행위, 타인들과 다른 자신만의 개성 있는 움직임을 끊임없이 시도해보려는 노력에 대한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댄서의 이름을 붙여 용어를 정하는 것은 스트릿 댄스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관절과 근육의 순간적인 수축과 이완을 특징으로 하는 Poppin Dance의 다양한 스타일중 상·하체의 분절과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는 Boogaloo Sytle은 두 가지 의미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Boogaloo, S.이라는 팝핀 댄서의 독자적인 움직임과 창조적 행위를 존경(Respect) 의미를 담아 부르기 시작하였다는 의미가 지배적이며, Boogaloo Style은 오늘날 Poppin Dance의 움직임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박성진, 2017:53-54).

또한 강렬한 캐릭터와 높은 점프, 그리고 화려한 팔동작이 특징인 Locking dance 역시 Campbell, D.에 의한 움직임을 시초로 보고 있다. 미술학도였던 그는 댄서인 친구들과 클럽에서 ‘로봇 서플’춤을 배우고 그것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정지하는 느낌을 주었다. 춤 경력이 전무했던 캠벨의 움직임을 보고 친구들은 “Hey, Do That Lock, Campbell!”이라고 외치며 움직임을 지속하기를 요청하였고 이것이 Locking dance의 가장 핵심이 되는 lock이라는 동작이 만들어졌다(송유리, 2017:16-18). Locking dance는 Campbell, D.의 성을 따서 Campbell Lock, 또는 Campbell Locking으로 불렸으며 그가 소속되어있는 The Lockers라는 락킹전문 댄스팀에 의해 미국에서 대중화 되었다.

습득되어진 스트릿 댄스는 춤의 역사로 신체에 흡수되며 버릴 수 없으며 숨길 수도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든 움직임들은 융·복합되어 출현하게 된다. 즉, 개인의 모든 움직임들이 존중 받아지기 때문에 정해진 정답을 맞추는 ‘퍼즐’의 형식이 아니고 스스로 만드는 춤의 퍼즐의 모양이 곧 정답이 된다.

스트릿 댄스는 자기를 확장(self-expanding), 자기를 검증하는(self-testing)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자기의 존재성을 풍부하게 만들고 행위주체성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스스로 드러내는 스트릿 댄스는 곧 자기표현 창출의 연속적 과정을 거치며 스스로 드러내는 신체적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 타자를 이해하는 것이 자기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증강시킬 수 있는 방법들 가운데 대조(contrast)와 동화(assimilation) 이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이것은 타자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자신들 안에 있는 타자성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나아가 실제로 우리는 “문화적 자기”가 “문화적 타자”의 요소들로 구성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즉 스트릿 댄스는 하나의 “문화 여행(culture travel)”을 통해 더욱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과 한계를 인식하고 도전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미학적으로 정식화 될 수 있는 실용(pragmatic)적인 방법이다. 스트리트 댄스는 공동체 속에서 자립적인 ‘자기스타일화’를 구축하고 각 개인의 신체와 의식에 내재되어있는 춤 역사와 문화적 코드로서의 존재성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이러한 특색 있는 공동체는 동일해질 수 없으며 동일성을 추구하지 않고 각각의 개인과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 상호소통하는 것을 지향하는 과정을 통해 스트리트 댄서의 삶이 보다 풍부하고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은 곧 스트리트 댄스에 내재되어있는 신체미학을 존재론적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3. 회복적 관점: 삶의 예술·‘스트리트 댄스’

한혜리(2018)는 “육체 그리고 정신과 영혼의 이분화 체계에서 춤추는 몸이 단지 이미지의 기호 체계에서 말이나 문자를 대신하는 기능이였다면, 자발적 자기표현의 춤은 감정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개별적 행위로 세계의 참여 행위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스트리트 댄스에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기반으로 과정지향적인 배틀문화(battle culture)라는 독자적인 문화가 존재한다. 배틀의 사전적 정의는 전투, 경쟁, 투쟁, 싸움이란 뜻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맞붙어 이기다’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이주영(2017)의 ‘스트리트 댄스의 배틀문화적 특성’연구에서 배틀문화는 1. 개방적 시스템, 2. 공간의 확장을 통한 탈脫극장적 춤판, 3.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동의 화합과 교류의 장으로서 배틀문화의 역할이 존재한다고 말하였다. 배틀문화는 DJ가 무작위로 선곡하는 음악에 맞춰 자신의 자신을 드러내는 적극적인 표현이자 주체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무용 대회방식에서 이루어지는 레퍼토리 퍼포먼스가 아닌, 즉석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공간을 모두 인식하면서 조화로운 움직임 보여줌으로서 관객들, Judge들에게 선택받음으로서 승패를 겨루게 된다. 이 배틀 문화에서 사용되는 음악은 모든 음악이 허용되며 장르, 시대, 작곡가의 여러 형식의 음악을 초월한다. 배틀문화는 최후의 1인이 남을 때 까지 계속 진행되는 서바이벌 형식의 토너먼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배틀문화적 특성에서 알 수 있듯이 스트리트 댄스에서 ‘살아있는 아름다움’이란 우아한 태도, 움직이지 않은 정적인 자세로 움직임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춤을 추며 심장의 박동수가 올라가고, 호흡이 빨라지며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이 만나는 순간의 경계에서 ‘신체’의 수많은 근육과 신경이 날뛰는 것을 느끼며 희열을 마주할 때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욕망과 의지, 책임을 가감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쏟아 붓는 행위에서 스트리트

댄스의 ‘살아있는 아름다움’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순간 느껴지는 순수한 감정은 언어나 문자로 환원되기 어려우며 경험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숨기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진솔하고 솔직한 문화 예술적 교류와 소통이 가능해 진다.

또한 배틀문화에서 심사와 평가를 담당하는 Judge가 공개적으로 홍보되거나 개인의 judge Show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는 것 또한 남녀노소 누구나 가리지 않고 참여자, 관객, 심사위원 모두 수평적 관계를 추구하는 배틀 문화의 특성이다.

즉 스트릿 댄스에서 ‘신체’는 단순히 뽑내거나 과시의 수단이 아닌 자신과 문화적으로 다른 ‘타자’와의 만남을 추구하고 그 속에서 상호존중과 이해, 배려를 전제로 하는 과정지향적 목표를 기반으로 한다.

스트릿 댄스는 극장, 공연장, 무대와 같은 제한적이고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장소에서 실행되는 예술적 개념이 아니라 일상이라는 삶의 무대 위에서 행위되는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춤 개념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신체미학적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화를 통해 스트릿 댄스 행위는 공동체 속에서 치유의 과정을 거쳐 다시 예술적 삶으로의 회복을 꾀하고자 한다.

## IV 결론

본 연구는 Street dance의 신체미학적 가치를 연구하는 것이다.

‘스트릿 댄스에서 발생하는 순수한 ‘쾌’는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고 지각적, 감각적, 의식적 특질이 내포되어 있는 특성 때문에 근대 미학에서는 제거되어야할 요소로 치부되었지만 리처드 슈스터만의 신체미학에서는 오히려 인간 본연의 본능을 통한 ‘쾌’의 추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신체’를 통한 미적 경험과 ‘쾌’를 추구하는 것, 실천하는 것 모두 미학의 영역을 삶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이론적 바탕이며 미적 경험을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태도를 통해 느끼고 일상적 삶과 미학의 연결성을 회복하여 실존적 주체로서의 ‘미학’을 구현하고자 한다.

또한 이주영(2018:34)은 리처드 슈스터만은 삶에서 이루어지는 미적 경험은 학문, 이론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를 움직이고 몰입하는 즉 개인의 적극

적이고 능동적인 실천을 바탕으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획득된다고 보았다.

“예술작품을 만드는 시간과 노동을 필요로 했던 시기의 예술은 예술 형식을 탁월하게 표현하는 능력(기술)이 예술적 우수함을 결정짓는 잣대였다. 그러나 예술작품을 생산하는데 집중했던 노동-제작 기술은 생각의 기술로, 자신의 정신과 의지를 표현하는 자기표현의 기술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예술 체제에서의 형식은 삶의 형식으로 그리고 예술 체험은 삶의 형식을 구성하는 최소이자 최대의 작용이자 조건이 된다”(황정옥, 2018:43).

즉, 리처드 슈스터만의 신체미학은 거대 담론 구조를 통해 세상과 사회를 뒤집는 총체적 혁명이나 문화나 인권운동으로서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성하는 작은 단위인 개인의 미적 경험을 기반으로 직접적인 실천을 통해 개인의 인간 본성을 회복하려는 시도이다. 또한 이러한 미학적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의식은 너무나 자연스러우며 의식과 ‘신체’의 합일을 추구하는 미적 경험 또한 너무나 본능적인 것이므로 누구나 실천 가능하다.

리처드 슈스터만의 신체미학은 단순히 외양적이고 재현적인 ‘신체’의 아름다움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며 미학적 인간, 미학적 삶을 고찰함으로써 신체미학에서 삶의 미학으로서의 미학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스트릿 댄스는 체화된 의식으로서의 흑인들의 삶과 문화가 녹아있는 총체적인 예술의 한 양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역성, 문화성, 역사성에 기반하며 서스럼없이 융합되고 복합되어짐을 추구한다. 이러한 스트릿 댄스의 개방성과 자유성은 인종과 종교를 허물어 누구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대중문화의 발전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창조적 움직임으로서의 발전으로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창조적 발전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닌 수용의 과정에 있어 문화적 타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다원론을 바탕으로 한다.

스트릿 댄스는 특정 인종, 특정 계급, 또는 특정 종교에게 국한되지 않을뿐더러 즐기기에 있어 나이와 성별, 주변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색있는 공동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스트릿 댄스는 a.k.a, Crewship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스타일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자기스타일화는 독선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있어 주체성을 가지며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자신의 존재를 세계에 드러내는 것을 즐기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스트릿 댄스의 성격은 오늘날 현대의 거대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자아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채 하나의 부품으로 전락해버린 개인의 대해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춤

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스타일화를 형성을 통해 행위의 주체가 된 스트릿 댄스는 이러한 변화된 신체를 통해 건강한 커뮤니티와 공동체를 구성한다. 이러한 스트릿 댄스의 공동체는 곧 서로를 인식하고 바라보고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배려 속에서 서로를 치유하고 삶으로서의 회복을 꾀한다. 즉 스트릿 댄스와 삶은 동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며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헤프닝들이 춤의 소재이자 움직임의 모티브가 될 수 있으며 그 과정 안에서 새로운 움직임, 창조적 발견, 그로 인한 삶으로의 예술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스트릿 댄스의 특성은 리처드 슈스터만이 말하고 있는 실천하는 삶으로의 미학, 미학적 삶을 위한 신체미학으로서의 창조적·존재적·치유적 가치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선구(2011), “스트리트댄스의 변천과 현황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박성진(2017), “팝핀 댄스의 한국 유입과 발전 과정에 나타난 수용 양상 고찰: 문화 접변 이론을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안창용(2013), “스트릿 댄서의 참여경험과 A.K.A특성에 관한접근: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대학원.
- 원지혜(2013), “힙합댄스의 미적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송유리(2017), “미국 락킹 그룹 〈더 락커스〉가 스트릿 댄스에 미친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이승건(2007), “미학의 확장으로서 R. 슈스터만의 몸미학”, 한국체육학회, **움직임의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4(4)**, 45-67.
- 이우재(2010), ‘현대춤의 문화적 대중성과 힙합 춤의 경향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이주영(2017), “힙합댄스에 내재된 의식과 소통방식”,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8(1)**, 177-189.
- \_\_\_\_\_(2017), “스트릿 댄스의 배틀문화적 특성”,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8(2)**, 157-169.
- \_\_\_\_\_(2018), “리처드 슈스터만 (Richard Shusterman)의 신체미학(Somaesthetics)에 의한 무용비평 구성 요인”,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 한혜리(2018), “춤추는 몸의 내재성과 초월성”,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9(2)**, 107-120.
- 허정선(2005), “리처드 슈스터만의 ‘몸 미학(somaesthetics)’에서의 ‘살아있는 아름다움 (living beauty)’”,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황인주(2016), “몸 미학과 무용과의 미학적관계성 연구”, 한국역사기록학회, **한국역사기록학 43**, 175-195.
- 황정옥(2018), “무용교육프로젝트에서의 무용 체험”,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9(3)**, 39-51.
- Shousterman, R.(2000), *Performing live*, 허정선 · 김진엽(역, 2012), **삶의 미학**, 이학사.